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류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정삼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복음을 전하는 추석

추석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석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오락을 삼가시고, 추석가정에 배 모본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특히 제사의식에 동참하지 말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간접적으로 참석하시되 절대로 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전 10:14).

*추석가정에 배 모본은 7면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다
(로마서 6:15~23)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롬 6:14). 그런데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는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심판 때에 이방인들과 다른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와 비슷하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대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다.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거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로마서 6장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15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를 섬기기 위해서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그야말로 자유한 그 자체다. 그런데 텅 비어 있는 자유는 그 사람을 죄의 권세 밑에 놓게 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마 12:43-45).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적인 속박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자유주의를 대항하여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말이며,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자유한 자임을 강조한다. 이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또 다른 하나의 투쟁에 관하여 언급한다. 이는 아무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해진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자유는 의를 섬기게 되었음을 뜻한다(롬 6:18). 의에 순종한다면 죄에게 순종할 수 없다(마 6:24). 의에 대하여 종이 된 자는 동시에 이와 정반대 입장에 있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롬 6:16).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순종'이다. 본질상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순종함과 동시에 불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주인, 의의 권세 안에 살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좋은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거나 높이 주는 일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을 '죄의 종'이라는 명에서 빼어 주신 것을 감사한다(롬 6:17). 저희가 죄의 종이었던 그때는 이제 지나간 과거이다. 이는 그들의 행동이나 선택에 의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의의 표시이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다(롬 1:5).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한다. 의와 하나님께 종 된 것은 진정한 자유다. 죄의 종과 의의 종 사이의 차이는 하늘의 너비만큼이나 크고 방대하다.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옛 세상에 속하였을 때의 우리 모습과 그때의 행편을 기억하게 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살에 관한 것들을 배우라고 권고한다(롬 6:19). 또한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비교하면서 그 목적이 얼마나 상반되는가를 설명한다.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며 의의 종의 결국은 생명이다(롬 6:23). 인간은 전에 죄의 권세 밑에 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후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나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의 새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전 주인이며 우리를 통치하고 왕 노릇 하던 자를 대항하여 싸우도록 허락받았다. 우리 전 주인은 잃어버린 자기의 열 영역을 다시 찾으려고 계속해서 투쟁을 벌이며 공격해 온다(벧전 5:8-9).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할 것이 없다(롬 6:22-23). 아멘.



10월 교회 일정

- 14일 (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1부예배 후, 여전도회),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16일 (금) 장로피택자 주재발표(금요찬양집회 시)
- 17일 (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 21일 (수) 일직예배(수요2부예배 시)
- 23일 (금) 2009년 제3차 청지기문헌(금요찬양집회 시)
- 25일 (주일) 종교개혁주일, 2009년 제5차 학습·세례식(찬양예배 시)

동절기 저녁예배 시간 변경 안내

10월 7일 부터 수요2부예배 및 금요찬양집회 시간이 저녁 7시로 변경됩니다.
(금요일 기도원집회는 저녁 10시 30분으로 변경)

LIVING SACRIFICE

⁽¹⁾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²⁾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omans 12:1~2)

One of the big missteps of Christians in today's world concerns commitment. Their lack of commitment to marriage leads to divorce and broken families. Non-committing Christians tend to hate the very ones they promised to love until death. Their lack of commitment to church makes them just Sunday morning churchgoers, or for some just Easter or Christmas attendees. For non-committing Christians, the Bible is just a bookshelf decoration, not a daily and necessary resource. Their lack of commitment to evangelism means no witnessing. Non-committing Christians proclaim their belief in Jesus, but go through their whole lives never sharing it with someone else. In today's Bible verses, Paul calls Christians to commit their lives to God as living sacrifices. What does it really mean for a Christian to be a living sacrifice?

A living sacrifice is someone who surrenders their body to God. Paul compassionately says,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Rom. 12:1). Paul is beseeching, in a certain sense begging, believers to put their bodies at the disposal of God. Through God's mercies, which are His love, grace, and salvation, Christians become God's holy children. If you really believe this, then present your body before God as a living sacrifice. Romans 6:11~14 remind us, "Even so consider yourselves to be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so that you obey its lusts, and do not go on presenting the members of your body to sin as instruments of uprightness; but present yourselves to God as those alive from the dead, and your members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to God. For sin shall not be master over you, 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All too often Christians get so busy with other things, but not busy for the things of Jesus. Your reasonable service cannot place the things of God as last priority. Your pride doesn't want you to surrender your body to God, but doing so is holy it is a living sacrifice.

A living sacrifice is someone who surrenders their mind to God. Paul instructs,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Rom. 12:2). We live in a high-tech world and there is so much competition for our mind. The Internet, television, radio, and media at large provide tons and tons of information for us to see and read everyday. Your mind controls your actions and desires. If you're in charge,

and not God, then you're in big trouble. Ephesians 4:20~24 say, "But you did not learn Christ in this way, if indeed you have heard Him and have been taught in Him, just as truth is in Jesus, that, in reference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you lay aside the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s of deceit, and that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and put on the new self, which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Romans 6:4~8 say, "Therefore we have been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so tha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so we too might walk in newness of life. ... Now if we hav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shall also live with Him." To be a living sacrifice you have to give up your way of thinking. To renew your mind you need to tune out negative information, spend time being quiet before God, develop a consistent devotional life, focus on the Bible's promises and rejoice in them, and attend church regularly so that the preacher's Bible teaching brings spiritual growth.

A living sacrifice is someone who surrenders their will to God. Paul explains,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om. 12:2). Those who love God deny their will because they know that God's will is the only will that is good and acceptable. Our stubborn will craves satisfaction in this world. 1John 2:15~17 say,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If you're bent on pleasure, it's from the lust of your flesh. If you're bent on possession, it's from the lust of your eyes. If you're bent on self-exaltation, it's from the pride of your life. The world and its lusts are passing away! Real satisfaction comes when your will is surrendered to God.

My dear friend, this life is very short. Giving yourself up to God is not just the right thing to do; it is the only way to follow Jesus to heaven. How strong is your commitment to Christ? Are you willing to surrender all to God? Please open your heart to hear God's message, and obey His directions. God will never disappoint you, and will always love and honor your living sacrifice. Amen. 🙏

다음 주일 설교

산 제물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김성판 목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큰 과오 중 하나는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에 대한 헌신의 결여는 이혼과 결혼 가정을 낳습니다.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그들의 반려자를 쉽게 미워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의 결여로 그들은 단지 선대미 크리스찬, 혹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만 겨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매일 매일의 생명 양식이 아닌 단지 책장을 차지하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전도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증인의 삶도 없습니다.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전 생애 동안 결코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진정한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

산 제물이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바울은 간절히, 어떤 의미에서는 애절하다시피 신자들에게 그들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그분의 사랑과 은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로마서 6:11~14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우 자주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합니다. 합당한 봉사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최우위로 제쳐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봉족시키기를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 곧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

산 제물이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2).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과다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라디오와 대중매체 등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량은 과연

홍수라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마음은 행동과 욕구를 통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20~24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6:4~8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산 제물이 되려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보에 귀를 막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하며, 지속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고, 성경의 약속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목회자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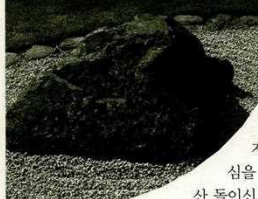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라

산 제물이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뜻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의지는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애타게 갈망합니다. 요한일서 2:15~17은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쾌락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소유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안목의 정욕에서 온 것입니다. 자아실현에 열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사라질니다! 진정한 만족은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드리는 산 제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9. 9. 23)

산 돌들 (베드로전서 2:4-10)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절절적인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으며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이 지어 주신 이름(베드로·반석, 돌)대로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였던 베드로는 사역 말년에 세상의 악한 것을 모두 버리고 갇힌 아기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가르쳤다(벧전 2:1~2). 자신의 욕망 때문에 큰 실수를 범했던 베드로였기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벧전 2:3). 베드로는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역시 산 돌이 되어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을 도전하였다(벧전 2:4~5). 그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깨달았지만 2:6~10.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돌인가? 아니면 산 돌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21:15). 우리의 지식과 경험, 문화와 가치에 따라 내린 결정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제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정당할지라도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베드로는 돌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심지어 놀라운 신앙고백을 할 때도 그랬다(마 16:16~19). 그러나 베드로의 열정은 그를 결정적인 실패로 몰고 갔다. 뒤늦게서야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에 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만을 붙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다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을 갖고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고 성도들을 권고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돌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산 돌이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돌인가? 돌의 의미는 무엇인가? 돌은 차고 명량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각각 제 모양을 가진 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돌에게 의미가 부여될 때는 만들어질

때이다. 베드로가 돌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은 환란과 핍박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의 산 돌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굴러다니는 여느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산 돌이어야 한다(벧전 2:4~5). 산 돌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선 영원한 사망이 있을 뿐이다(롬 6:23).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산 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산 돌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물이 된다(엡 2:5; 롬 12:1). 돌모양이 제각각이듯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쓰임을 받을 것이다(고전 12:8~11). 산 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면 된다. 내 모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산 돌이 될 수 없다(고전 12:26~27).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러나 쓸모없는 돌처럼 여김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잇돌이었다(벧전 2:6~8). 모퉁잇돌은 모든 건물을 짓는 데 주추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돌’이라는 집을 세워 나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퉁잇돌(머릿돌)이다(마 7:24~27). “이 닦아 둔 것 외에 놓기 다른 터를 닦아 돌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우리 신앙의 머릿돌은 무엇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이다 그는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니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라”(산 32:3~4).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사 18:2; 벧전 2:7).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세상에 취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야)로 믿지 않는다(요 1:11~12).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자.

베드로는 크게 실패하여 낙담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산 돌로 만들어 주셨다(요 21장; 행 2장). 이제 그의 삶에서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빛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흠잡히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거룩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거룩을 얻은 자니라”(벧전 2:9~10). 세상은 돌이 되려는 우리를 조롱하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물 돌이 아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 돌들이다. “나는 작아지고 오직 십자가만 커지게 하소서.” 아멘.

메시아의 죽음 ②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점

사람은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부정한다. 이처럼 인간 자신이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찾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자.

복음서 기자들 대략 A.D. 30~70년 사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고난과 죽음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이 기록을 통하여 분명해지는 점은 복음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실이다. 사도신경, 교회력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죽음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의 조약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만약 조약이 아니라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들었으며 비참했던 최후의 모습을 가감 없이 기록했다. 마구간에서의 탄생, 바울로서의 고난한 삶, 공생애 기간 중의 분주한 사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바로 그 예이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인자’(사람의 아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화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을 부각시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다.

전하심을 원했던 것과 전하여진 것의 차이점 예수님은 동정녀로부터의 탄생,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전제되어 율원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것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심을 원했던 것과 전하여진 것이 달랐다. 이런 문제는 갈라타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발견하게 된다(갈 1:6~9). 4복음서는 저자, 참고자료, 편집 방법이 각각 달랐으며, 복음서의 기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룬 기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메시아의 죽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책(단후 3:15, 17)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간의 이성과 지성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요 21:25).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자.

독자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의 중심 복음이 다르게 전해지고 있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도들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신약성경에 포함된 서신서들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서신서가 기록된 당시의 독자들(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기도 하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수가성 여인, 어부들 등 인종, 민족, 나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야기를 통하여 계속 전해지고 있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로마인들을 통해서도 말이다(눅 2:1; 막 15:1~2). 인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은 채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 메시아의 죽음은 신화가 아닌 역사 속에 분명히 실재했던 확실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 차례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못 영혼들에게 이야기하자.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

이번이 두 번째 사역이었다. 그들은 정말 순수했다. 어른,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어눌한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었고 잘 따라 해 주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 저들이 우리가 이방인, 외국인이라 신기해서 우리의 말을 잘 듣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영혼들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앗을 뿌립니다. 담당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 전도지를 보고, 아니면 그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전도지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다.

이번 사역을 통해 나는 신앙의 방향이랄까, 무언가 내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 한때가 가서도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토대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누릴 풍성한 은혜들과 부여주시는 그 큰 사랑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나(대북부)

기도의 힘

선교 심사를 받을 때마다 재심사로 넘어갔고 팀원들의 전도가 해결되지 않아 선교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더니 일이 하나하나 해결되었다.

선교지에 도착하니 머리부터 땀 했다. 40도가 넘는 온도에 습기까지 많이 아니었다. 밤 12시에도 땀이 나니 아침에는 어쩔까 싶어 눈앞이 캄캄했다. 예상했던 대로 첫날부터 울고 싶을 정도로 더웠고,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있을 생각을 하니 미칠 지경이었다. 게다가 축회 전도 때 방문한 가정에서는 뜨거운 물을 주셨는데 먹지 않고 있으면 자꾸 먹으라고 해서 그 정도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힘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인지 둘째 날부터는 견딜만 했다.

선교지 사람들은 불교를 많이 믿고 있었다. 어느 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다는 물음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총에 맞아 죽는다고 몸짓으로 설명했다.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전했고,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 술집이 집안에 신을 모시는 물건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 물건을 가리키면서 두 손은 모아 믿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웃으면서 그렇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부처에 대해 기본 용어 설명을 해 주었다.

나는 두려움에 싸여 조심히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랑스럽다는 듯 사자까지 펼쳐가며 설명을 하였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그냥 내가 우리나라 문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뭘 하는 거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부처에 대해 들으면서... 예외상 웃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자 내 자신이 실망스러웠다. 그 다음부터는 어느 집에 무엇을 믿고 있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만을 전하였다.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기본 나빠하지 않고 잘 받아주어서 주님께 감사했다. 선교지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여 물만 먹었지만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주님이 입에 안 맞는 음식 대신 은혜로 배를 채워주시는 것 같다.

임인선(고동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1일(월) ~ 9월 29일(화)	10교구 4팀	정문호
9월 22일(화) ~ 9월 30일(수)	5교구 3팀	김옥근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6일(수) ~ 9월 25일(금)	8교구 3팀	오형식
9월 16일(수) ~ 9월 24일(목)	23교구 3팀	정중현

회개와 자기 부인



저는 중증부가 아닌, 교구팀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가지 않고 어른들과 처음 가는 것이라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려고 다짐하며 준비했습니다. 중증부에서 선교를 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으니 선교를 가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수련회에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기도를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지 않고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가끔 아픈 때가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사역지에는 빈 집과 사나운 개들이 많아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더 기운이 나고, 부족한 언어로 전할 때에도 자신감이 생겨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 몸이 많이 피곤해서 전도하기가 힘들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날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해서 주님께 죄송하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에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진실로 살아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에서 주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와 함께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 연약한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알리고 더욱 힘써서 믿음이 커진 만큼 기도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가현(중동부)

친구초청 전도잔치를 마치고

학교 친구였던 현진이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용기를 내서 현진이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했다. 대답을 듣기 전까지 기도를 하였다. 그 뒤로 현진이는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대답을 하였다. 친한 친구가 교회에 오니 마음이 편했다. 이번 일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김윤혜(초등부)

전도한 지인이자 잘 나와서 기쁘다.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들어주셨나 보다. 지인어를 전도할 때는 지인이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됐다. 그런데 지인이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뻐했다. 나도 지인어를 위해 기도할 것이지만 지인도 빠지지 않고 매일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인어를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예진(초등부)

새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나는 일주일간 내내 기도했다. 밥 먹을 때, 수영할 때,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불일 볼 때, 어디를 갈 때나 기도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거기 내용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써서, 새친구도 교회에 가고 싶어했다. 그 친구도 엄마께 자랑했다. 이제 새친구를 위해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일요일마다 보성교회 집에 가서 모닝글을 해 줄 것이다. 김준혜(소년부)

천국의 기쁨

줄린 눈을 비비며 마가복음 강해가 진행중인 월요 새벽기도회에 나타났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부와 유년부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을 불렀다. 어린이들의 노래라고만 생각했던 찬양 곡이었기에 오랜만에 부르니 신선하고 즐거웠다. 성도들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찬양과 멀어지게 되는 것 같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약간의 찔림이 있었다. 나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일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즐겁고 기뻐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 그리고 늘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는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나아가기만 하면 말이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때의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대상이었으며,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던 어린 아이, 그리고 가장 최연의 모습으로 경멸 받은 사람들, 겉을 수조차 없었던 육체적인 나약함을 지닌 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다.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을 돌보셨고,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낮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천국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기에는 나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계산하며,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고,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많다. 천국에 가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라기보다 말씀하신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최연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 매일매일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정미선(청년1부)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녔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왔다. 물론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포함하여 많은 기도제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주 빨리 응답해 주셨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순종하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도 잘 아는 것 같았고, 열심히 말씀 생각하며 회개도 하였다.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지, 이러니 주님이 나의 삶을 평탄케 하셨구나.'라는 어리석은 자만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로는 늘 겸손하며 나보다도 남을 높이고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내려던 내 모습에서 조금씩 이상 징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이젠 같으면 쉽게 참고 넘겼을 일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있어 잠도 못 자고 힘들어 했다.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힘들게, 또 오랫동안 나를 잡아매는 이유를 몰랐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20년 만에 오빠가 귀국하여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가운데 "그 아비 요나단으로 인해 다윗왕 앞에서 식사를 하며 왕자 대접을 받지만 여전히 두 발을 저는 으비보셨"이란 내용이 있다. 전에 몇 차례 읽었지만 그냥 지나쳤던 내용으로,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어쩔수

없는 죄인인 나. 남을 정죄하며 아프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서치 못해 괴로워하는 죄인 된 내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후로 주님은 말씀 가운데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셨고 거기 에 나는 강령화하고 분명하게 날마다 때마다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로 반응했다. 이제까지 지식적으로 알았던 복음이 마음속에서 확실히 깨달아진 것이다.

위임목사님이 부임하시던 해에 마침 우리 가족도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접해 보지 못했던 나로서는 다음 주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주간총현>을 읽곤 했다. 주변에선 말이 어렵다고 할 때 그들을 안타까워했던 내가 이제야 진짜 복음을 깨닫나... 참 부끄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나 너무 행복했다.

그렇다. 복음은 내가 참으로 예를 쓰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다. 사랑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부끄러운 나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고 앞으로 주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가벼워지든지. 죄 짓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나를 언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해 주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낀다.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무릎 꿇아가기 원합니다. 이 또한 내 결심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김하경(집사, 15교구)

나 여호와와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 3:6)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도 항상 변화합니다. 때론 우리의 목표나 확신마저도 변화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말 3:6). 하나님의 변함없음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죄의 삯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의 삯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릅니다.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의 삯은 언제나 동일합니다(롬 6:23; 창 2:16~17). 첫 번째 죄는 영적인 죽음, 궁극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초래했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다시 말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죽음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히 9:27). 참 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절대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변치 않는 추수의 법칙

추수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만약 나쁜 씨를 뿌렸다면 나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좋은 씨를 뿌렸다면 좋

추석가정에 배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 찬 송	 559장	 다 같이
◆ 말씀봉독	 말라기 3:6	 인 도 자
◆ 말씀선조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인 도 자
◆ 통식기도		 다 같이
◆ 찬 송	 435장	 다 같이
◆ 주기도문		 다 함께

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 6:7~8). 따라서 죄를 심고 은총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수확은 심망스러울 때도 있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임박한 추수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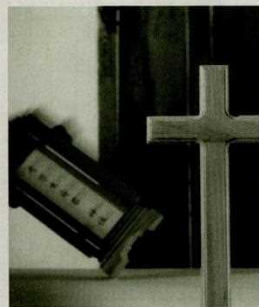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롬 5:8).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아 본 사랑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요 15:13).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삯과 추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들을 삶에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행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심자가자의 길

조상숭배는 안 됩니다(1)



사자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뿌리가 된다. 시체를 매장할 때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추려는 것 또한 죽은 영혼이 그 시체에 있거나 배회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민속신앙과 조상숭배 사상이 결합하여 죽은 조상의 혼이 다시 찾아와서 차례 놓은 제물을 먹는다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미 죽은 조상의 혼이 배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정된 안식소에 가 있지만 때때로 자손들을 찾아오며, 특히 죽은 장수와 그가 살던 곳에 찾아오고 그 혼들이 끊임없이 자손들의 제사와 공양을 받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이처럼 극진한 공양을 받는 조상의 혼은 그 자손을 축복한다고 믿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53	정윤호	17	청년1부	정옥련(12)
1354	이현수	2	청년1부	
1355	임덕조	19	장년2부	주영선(14)
1356	김현주	7	청년1부	김명숙(7)
1357	김성구	21	청년2부	오혜옥(11)
1358	이창수	17	사랑부	김대학(14)
1359	배이순	1	장년1부	박순애(12)
1360	홍영현	11	장년2부	심인주(3)
1361	오부소	23	장년2부	전인순(20)
1362	박정식	16	장년3부	박학란(11)

※ 종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